

영국은 정식 입법하여 생체 장기적출을 제지하다



▲ 2019년 6월 17일, '중국법정'은 런던에서 "중공은 반인류범죄를 범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 중 '집단학살죄'와 '반인류범죄'가 포함된다.

[밍후이왕] 2월 11일, 한 개 <약품과 의료기계 법안> 수정안이 영국 의회에 제기됐다. 상, 하 의원에서 각각 통과된 후 정식으로 영국에서 입법됐다.

이 수정안은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의 죄행을 명확하게 제지하는데 의미가 중대하다. 영국 정부는 '독립인민법정' '중국 법정'에서 내린 최종판결서에 대한 첫번째 법적대응이다.

수정안은 영국의 의료기계와 종업원 상대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강제 장기적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동시에 "중공이 강제로 양심수의 장기적출"을 제지하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강제 적출 받을 가능성) 인체 조직, 장기와 세포 등이 영국의 료계에 수입되지 않게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증거를 상세하게 심사한 후 '중국 법정'은 런던에서 최종판결을 내려 "중국공산당정부는 반인류

범죄를 범했다."고 심판했다. 그 중 '집단학살죄'와 '반인류 범죄'가 포함된다. 중국 (중공)은 대규모적인 강제로 양심수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한 시간이 아주 길며, 파룬궁수련생이 줄곧 장기 공급의 주요래원이라고 법정에서 제출됐다. BBC, 프랑스방송, 영국 '가디언' 등 국제주류매체가 현장에서 이 뉴스를 보도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여러명 영국의원은 '중국 법정'의 판결 결과를 인용했다.

이번 수정안은 상의원 헨터가 제기했다. 그는 의회변론회에서 "전세계는 점차 중공이 강제로 양심수의 몸에서 장기를 적출한다는 것을 의식했다. '중국 법정'은 최근 산 피해자의 몸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무서운 죄행 (말살과정)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파룬궁수련생은 한개 장기공급으로 됐다. 뿐만 아니

나라 가능하게 주요 래원이다."라고 제기했다.

수정안 변론에서 제기된 또 다른 주제는 '시체 전시'이다. 2018년 '시체 전시'는 버밍엄의 국가전시중심에서 전시됐다. 시체 표본은 전부 중국에서 제공되고 '신원 확인이 없는 시체'로 분류됐지만 이에 대한 그 어떤 허가 문건 혹은 동의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메리의원은 말했다: "그것은 양심수 혹은 인권피해자의 시체였다. 영국인은 알지도 못한채 매한장에 15 파운드의 표값을 지불하고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관람했다. ... 우리 국가와 인민은 절 때로 중공 야만행위의 공범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메리의원은 그런 반인류죄를 범한 중공인원들이 법적제재를 받기를 희망했다. "이 수정안의 가장 명확한 정보는 우리는 이런 반인류의 무서운 죄행을 용서해서는 안된다. 이는 중국인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스웨덴매체는 그들 둘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다

[명후이왕] 2월 12일은 중국 신축년 초하루이다. 스웨덴의 린세핑시 두 형제는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새해 인사드리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일리아스와 그의 형 미하일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그리스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현재 레스토랑과 클럽 등, 가족 사업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웃 주민들에게서도 소탈하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당지에서 이름난 다른 한 원인은 두 형제는 모두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이다. 1995년 4월, 파룬궁(또 파룬따파라고 부름)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대사님께서 스웨덴 예테보리에 친림하셔서 강의하고 연공을 가르치셨다. 순푸하고 선량한 스웨덴 각 민족 민중들은 ‘진선인(真善忍)’을 아주 인정했으며, 입과 귀로 전하여 스웨덴에 널리 전했다. 현재 여러개 성시에 연공장이 생겼다. 스웨덴 남부에 위치한 린세핑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인생에서 잊을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

“1998년 10월의 어느 하루 제 친구가 <전법륜(轉法輪)>을 갖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 내내 우리는 자기 수양과 수련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5장의 파룬따파 연공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때 나는 제 평생 이것을 기다려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잊을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라며 동생 일리아스는 경상적으로 사부님과 자신이 파룬따파 수련을



▲ 미하일(좌)과 일리아스(우) 두형제는 두손으로 허스하여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시작할때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말했다.

사람들은 아마 이전의 일리아스가 수년 동안 마약을 복용해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 그는 이 퇴폐적인 삶에 지쳤다. 마약을 끊으려는 많은 시도를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는 신에게 새로운 참된 생명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미망속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기대했다. 그는 회억해 말했다: “그날, 파룬따파가 제 영혼을 불러 깨웠습니다. 저는 신의 은덕을 받고, 마침내 인생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일리아스는 <전법륜(轉法輪)>을 읽은후 파룬따파의 법리에 깊이 흡인 되었다. 직장에서던 일상생활에서던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하기로 했고 빠른 시간내에 술, 단배와 마약을 끊었다. “두 딸에 대해 다시는 엄격하게 훈계하지 않고, 많이 관심해 주었으며, 그들을 성실하고, 선량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직장에서 모순과 쟁투가 생겨 대방이 불복하거나 심지어 비난할 때도 나는 대방을 이해하고, 자기를 찾았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방을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업무에 책임지도록 알려줍니다.

다시는 그전처럼 높고 낮은가를 쟁논하지 않습니다.”

“중공이 한 거짓말은 모두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미하일도 2002년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생활중의 미하일은 성격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수련전 그의 가장 큰 단점은 나쁜 성격이었다. 그의 아내와 딸은 수련하지 않기에 말다툼을 피면하지 못했다. “뒤돌아보면서 저는 이러한 논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는데 그때 저는 아주 절망했습니다.”

수련을 시작한 후 그는 모순중에서 자신을 심사해 많은 쟁투를 피면했고, 나쁜 성격도 많이 고쳐졌으며, 가정생활도 화목해졌다. “이제 불쾌한 일에 부딪히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다음 자신을 심사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미하일은 자신이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여 심성이 제고된후의 아름다운 경험을 말할 때 마음속으로 부터 우러나는 기쁨이 얼굴에 피었다. 그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3면에 계속)

‘천안문 분신자살’ 제작자들의 현재 상황

경시

[명후이왕] 전 중공 공안부 부부장 류징 (刘京), 전 중공 라디오 방송총국 부국장 리동성 (李东生), 전 중공 신화사 사장 텐충밍 (田聪明), 전 중공 CCTV “신문연보 (新闻联播)” 앵커 뤼징 (罗京), 전 중공 CCTV “동방시공 (东方时空)” 항목 주관 천멍 (陈虹), 이 5 명은 모두 액운을 면치 못했다. 이 5 명은 모두 공동한 특점이 있다. 20 년전 중공이 제작한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사건 제작에 참여했다.

2001 년 1 월 23 일, 설날 그

믈날 중공은 5 명 파룬궁수련생이 천안문광장에서 ‘분신자살’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중공이 파룬궁을 모함하려고 조작한 세기 가짜 사건이었음을 증명했다.

류징은 호두암 (喉癌) 에 걸렸다. 현재 소식이 끊겨 생사불명이다. 류징은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을 꾸미고, 증오를 선동하는 선전을 실시했다.

리동성, 2016 년 1 월 12 일, 15 년 판결을 받았다. 리동성은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 의 주요 제작인 중의 하나다. 또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 제작에 친히 참가하고, 감독했으며, 전세계 전파에서의 전부 비밀과정에 참가했다.

텐충밍, 2017 년 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임기내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 이 발생한후 신화사는 방송규칙을 어기고 사건 발생 2 시간후 전세계에 영어 뉴스를 발표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뤼징, 2008 년 6 월 5 일 린파암으로 사망했으며, 사망하기 전 구두와 허궤양으로 고통받았다. 뤼징은 생전에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 사건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앵커다.

천멍, 2008 년 12 월 23 일 위암으로 사망했고 당시 나이는 불과 47 세였다. 그는 CCTV ‘천안문 분신자살’ 사기극 제작자이다.

(2 면의 계속) 글썽이면서 말했다: “당신이 오직 파룬궁 진상을 요해한다면 이는 한부의 사람을 선하게 배워주는 고덕 (高德) 대법이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공이 한 거짓말은 모두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편되지 않고, 이 진정으로 고층차로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않은 것에 대해 행운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체는 “용감한 사람”으로 본다

파룬따파의 혜택을 경험한 두 형제는 주동적으로 전세계 따파 (大法) 제자 반박해, 진상 알리

는 행렬에 가입했다. 그들은 당시 여러 곳에 따파현수막을 내걸고 시중심 보행거리에서 진상 알리기 활동을 거행했으며, 당시 신문에 진상 문장을 발표하는 등 각종방식으로 대중에게 중공의 파룬궁박해 사실 진상을 알려주었다.

2017 년 5 월, ‘진선인 국제미술전’ 이 린세핑에서 열리자 중국영사관은 시 정부에 전화를 걸어 행사 취소를 압박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매체는 ‘진선인 국제미술전’ 에 와 관주하고 중공이 어떤 방식으로 이 행사를

막으려 했는지 폭로하였으며, 이 형제가 폭정에 맞서는 용기를 냈다고 칭찬했다. 결과 부시장이 개막식에 친히와서 미술전을 위해 막을 열고, 스웨덴은 인권수호를 위해 반드시 일어 나야한다고 제기했다.

중국새해를 즈음해 두형제는 두손으로 허스하여 그들이 사부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달했다. “리홍쯔 (李洪志)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 (大法) 수련은 저희들의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사부님께서 즐거운 설을 보내시길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연변 박해 진상

연변 룡정시 박분옥, 채인자가 받은 박해과정

박분옥, 여, 조선족, 72 세.

2020 년 7 월 18 일, 자택에서 공안국, 파출소 악경에 의해 룡문 파출소에 납치된후 병상태가 나타나 집에 돌아왔다. 11 월 검찰원과 파출소 인원은 또 그를 연길감수소에 보냈다. 박분옥은 당일 정념으로 집에 돌아왔다.

채인자, 여, 조선족, 72 세.

2020 년 12 월의 어느하루 사회구역, 이웃, 파출소의 몇명이 채인자의 집에 뛰어들어 그를 납치해 연길 세뇌반에 보내 강박으로 어떤 종이에 손도장을 찍게 하고는 3 일후 집에 보냈다.

역사 이야기 어떤 사람들이 역병에 걸리지 않을까 ?

송나라 때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관사인(管師仁)이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전 어느 해 원단 아침, 일찍이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몇몇 거대한 역귀(疫鬼 역병을 퍼뜨리는 귀신)들을 만났다. 관사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묻자 역귀가 말했다. “우리는 역

귀로 새해 첫날을 맞아 인간 세상에 온역을 퍼뜨리려 왔습니다.”고 했다. 관사인이 “우리 집에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고 묻자 역귀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관사인이 그 이유를 묻자 역귀가 대답했다. “당신의 집 조상 3대가 덕을 쌓고, 다른 사

람의 악행을 보면 저지 시키고, 선량한 행위에 대해 표창했습니다. 당신의 집 자손들은 모두 가문이 문턱을 빗낼터이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당신집에 올수 있겠습니까?” 말하고는 사라졌다. 과연 그해 온역이 유행할 때 관사인 일가족 만이 다 무사하고 평안했다.

2 톤 나무판자 더미가 몸을 덮쳤지만 무사했던 이유

[밍후이왕] 우리 공장은 가구를 만드는데, 산동성에 분점을 냈다. 2020년 11월 어느 날, 가구 만들 나무판자를 컨테이너에 가득 실은 트럭이 공장 창고 앞에 정차해 있었다. 나무판자 길이는 약 2.5m, 한 묶음당 높이 1.2m, 무게는 1 톤이었다. 나무판자를 쌓아 묶으면 높이는 2.4m며 무게는 2 톤이나 된다. 그날 꼭씨 성을 가진 트럭 기사는 지게차로 나무판자를 창고로 옮겨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그가 마지막 나무판자 더미를 옮기려 하자, 갑자기 나무판자가 꿈작하지 않았다. 지게차는 다시 나무판자를 묶은 밧줄을 잡아끌었다. 두 번을 당겼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운전기사와 함께 나무판자를 옮기던 인부 샤오전이 차에 올라가 나무판자 두 더미의 매듭을 풀었다. 그때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2 톤 가는 나무판자 묶음이 샤오전을 덮쳤다. 부근에서 일하던 사람들 몇 명이 황급히 뛰어왔다. “나무판자 밑에 깔렸어요!” 라는 외침이 두 번 들린 뒤 더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운전기사 꼭씨는 급히 차에 올라갔다. 나무판자 밖에서 오른팔로 머리를 감싼 샤오

전의 머리가 보였다. 사람들은 서둘러 샤오전의 몸을 누르고 있는 나무판자를 들어냈다.

얼마 전에 꼭씨와 함께 대법을 얻은 파룬궁 수련생은 나무판자를 옮기면서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썬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웠다고 한다.

샤오전을 나무판자 더미에서 무사히 구해냈을 때 그의 의식은 정상이었다. 120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보냈으나 의사는 CT와 MRI 촬영을 하고 나서 관찰다며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전, 우리는 샤오전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렸고 그는 ‘삼퇴(당, 단, 대 조직 탈퇴)’를 했다.

우리가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고, 머리를 감쌌던 오른팔의 피부만 약간 푸르스름했다. 그는 정말 괜찮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파룬따파가 저의 남편의 목숨을 구해줬어요!”라고 하면서 기뻐했다.

내가 샤오전에게 나무판자 밑에 깔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봤다. 그는 “처음엔 머리와 몸이 모두 나무판자 밑에 깔렸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

신은 멀쩡해서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 외치고 그 후에 정신을 잃었어요. 몸이 깔릴 때 머릿도 분명히 나무판자 밑에 깔렸는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머리가 나무판자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라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지난해 파룬궁 진상을 들은 후, 우리 둘은 ‘파룬따파하오, 썬싼런하오’를 항상 외웠어요. 그 후로 좋은 일이 끊이지 않아요. 작년 설에 공장 복지 추천에서 남편은 1등에 당첨돼 4천원 되는 휴대전화 1개(공장 전체 인원 150여 명에 1등은 2명)를 받았어요. 설을 쇠러 고향에 갔을 때 아들과 딸 그리고 친구 한 명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모두 ‘삼퇴’했어요.”

샤오전은 ‘삼퇴’ 명단을 우리에게 주면서 탈당사이트에 올려달라고 했다.

이어 샤오전의 아내가 말했다. “남편의 친구가 우리 집에서 30만 원을 빌린 뒤 6년이 넘도록 갚지 않았었는데 이 친구가 지난해 설에 스스로 전부 갚았어요. ‘파룬따파하오’를 외우면 정말 복을 받아요!”

글 / 중국 대법제자